

무등산 수박, 매출·농가소득 급증… 부활 ‘날갯짓’

올해 종자 개량·유통 인프라 개선 ‘투트랙 전략’ 성과 폭염에도 풍년…젊은 소비층 공략 성공 ‘반전 드라마’

기록적인 폭염과 생산농가 감소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던 광주 북구 대표 특산품 ‘무등산 수박’이 부활의 날개를 폈다.

시범 도입한 종자 개량과 접목 기술, 유통·홍보 채널 확충 등 ‘투트랙 전략’이 맞아떨어져 이례적인 풍년을 기록했다.

11일 광주 북구와 무등산수박영농조합에 따르면 올해 수확량은 2350톤으로, 총 매출액은 2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2100톤·2억3000만원)를 넘어서는 실적이다.

한때 ‘임금님 진상품’, ‘에르메스 수박’으로 불리며 명성을 누렸던 무등산 수박은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 작황 부진 등

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였었다.

2000년 30곳에 달했던 재배 농가는 2009년 16곳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는 10곳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에는 불과 7농가만이 근근이 명맥을 잇고 있다. 재배면적 역시 12ha에서 2.6ha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품질 혁신’과 ‘유통 혁신’이다.

정현정 북구 시장산업과 주무관과 조합은 내병성과 당도를 높은 개량종자와 접목기술을 적용, 비닐하우스 4동에 800여통을 재배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모종 생존율은



광주 북구 대표 특산품 ‘무등산 수박’

이전보다 5~10% 상승했고, 전체 생산량은 약 10% 늘었다.

올여름 평균기온이 26.1도, 폭염일수가 29.6일에 달하는 역대급 더위였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성과는 더욱 의미가 크다.

평균 당도도 지난해보다 1브릭스 오른 10.5브릭스를 기록해 상품성이 크게 향상됐다. 당도와 식감이 좋아지면서 30~40대 젊은 소비층의 구매 비중이 높아졌고,

과거 50~60대 위주였던 고객층이 다양화됐다.

유통 인프라 개선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광주시와 북구가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들여 무등산 수박 공동직판장을 전면 리모델링했다. 20년 된 노후 시설에 냉방기와 화장실이 설치되면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그 결과 판매 기간은 50~60일에서 37일로 단축되며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백화점 판매 실적도 급증했다. 롯데백화점 전국 11개 지점에서 1500만원(지난해 400만원), 신세계백화점 2개 지점에서 700~800만원(지난해 4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백화점 측 추가 납품 요청이 이어졌고,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오는 등 전국 유통망 확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광대 무등산수박영농조합 총무는

“직판장 리모델링 이후 외지 관광객 유입이 늘고, 백화점에서도 조기 완판되는 등 인기가 회복됐다”며 “내년에는 전국 유통망 확대와 함께 생산량·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등산 수박의 부활은 농가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곡성 등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농민들이 귀농 의사를 밝히고, 청년 4~5명이 신규 재배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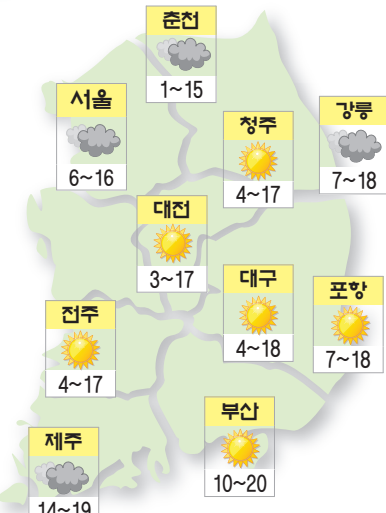
이에 따라 북구는 내년부터 무등산 수박 육성 전담팀을 신설하고, 종자 특허 등록과 스마트 단지와, 자동 선별라인 도입 등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무등산 수박은 광주 여름의 상징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생산·유통·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으로 명품 수박의 명성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04	달름	--:--
예보	17:29	달름	13:26



광주	☀️	5~18
목포	☀️	7~16
여수	☁️	9~17
순천	☀️	5~19
구례	☀️	3~19
광주	☀️	3~18
임도	☁️	7~19
목포	☀️	12~16
진남	☁️	5~19
진도	☀️	6~17

목포	미물(고)	06:55 / 19:57
	샘물(저)	00:11 / 12:07
여수	미물(고)	01:55 / 14:54
	샘물(저)	07:57 / 21:41

“학교 매점 운영권·자녀 취업 시켜줄게”

금품 갈취 60대 사기범 실행

광주 한 중·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양도하고,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금품을 빼앗은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17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학교 재단이 외가쪽으로, 이사장에게 급식과 매점 관련된 권한을 받았다. 돈을 주면 매점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피해자의 큰 딸과 작은 딸을 학교 행정실과 C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이유로 500여 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취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안전체험교육 받는 어린이들 11일 광주 북구 옹골동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광주어린이안전학교(회장 김은미) 강사들로부터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여순사건 유족, 변호사·브로커 농간에 두 번 운다

유족 3명, 보상금 6억 못 받아…경찰 고발·기자회견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유족들이 가족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손해배상, 형사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떼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순사건 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변호사 A씨는 재산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3명의 유족이 받을 형사보상금 7억2000만원을 수령한 뒤 절반 가까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이 수개월째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정산 중”이라며 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국민신문고 진정과 경찰 고소, 기자회견까지 이어가며 항의 중이다. 재산 무죄 판결이 나왔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일부 일탈’이 아니

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형사보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금 지급 구조가 변호사 개인의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변호사 계좌로 일괄 지급하면, 변호사가 각 유족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법적 감시·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가 없다.

일부 변호사는 보상금의 20~30%를 성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브로커를 동원해

소송인을 모집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최근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5.5%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브로커 개입 시 수수료가 다시 급증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유족회 관계자는 “20%를 요구하면 변호사가 ‘흥정’ 끝에 0%로 낮춘 경우도 있다”며 “브로커까지 끼면 유족 몫은 절반 이하로 줄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자 일부에서는 국가가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했으면, 보상금 집행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형사보상금 지급을 유족 개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법원 공탁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

다. 유족들이 스스로 법률 대리인을 겸할 수 있도록 공공 변호사단 또는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여순사건 재심을 맡았던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변호사가 피해자의 배·보상금을 미루거나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한 죽음으로 한번, 명예 회복 뒤에 또 한 번 유족을 울리는 건 국가의 책임 회피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발생한 국군 14연대의 불기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스쿨존 사고 택시기사 ‘벌금형’

만년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들

이 받은 택시기사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야 확보 곤란이 인정돼 법정 권고 양형 범위 중 가장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침범)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오후 2시 55분 광주 북구 한 사거리 스쿨존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다가 길가던 10대 아동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택시에 치인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주의해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2026학년도 수능일 특별교통대책

광주시, 등교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

직장인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항공기 이착륙 조정

광주시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우 시내버스 노선을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집중배차한다. 또한 수능 당일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시청과 자치구, 공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능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수능 당일인 13일 오전 6시부터 종합상황실 6개를 가동해 주차 질서, 비상 수송, 소음 통제 상황을 총괄한다. 공무원·경찰·모범운전자 등 543명이 특별교통대책에 투입된다.

시내버스 기·종점 14곳과 시험장 주변 지하철역 7곳에는 직시요원 70여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각 대중교통이 정시에 운행되도록 관리, 시험장 경유지·시험장 방향 지하철역 출구 등을 안내한다.

각 시험장 인근 도로에도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직시요원을 배치한다. 특히 시험장 반경 200m 구간에 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또 시험장 경우 시내버스 38개 노선을 등교 시간대(오전 6시~7시30분)에 집중배차하고 버스 내부에는 시험장별 정차 정류소 안내문을 부착한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능 당일 공

공기관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며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오후 1시10분~1시35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장애인 수험생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사전 예약하면 수험장 등·하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 입실 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은 112로 신고하면 순찰차 긴급 수송이 가능하다.

배상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각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운전자들께서도 시험장 주위에서 차량 경적을 자제하는 등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치러지며,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경찰청, 교차로 경찰·모범운전자 배치

고사장 주변 순찰 강화·수험생 태워주기도

광주·전남 경찰이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들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험생은 총 1만7731명으로, 시험 당일 40개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험장(38곳) 반경 2km 이내 주요 혼잡교차로를 중심으로 경찰관·모범운전자 등 403명과 순찰차·경찰오토바이 76대를 배치한다.

또 시험장 출입구 주변에서 대중교통 수험생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자치

단체와 협조해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나 시험장 착오로 정해진 시간에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은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인접 순찰차로 시험장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험생을 태워줄 계획이다.

시험장 또는 주요 교차로 주변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는 총 20곳이다.

자치구 별로는 △북구 6곳(일곡·문화·경신여고·말바우·운암·유동 사거리) △서구 5곳(서구청 삼거리, 화정·풍금·상무역·광천 사거리) △동구 3곳(산수

오거리, 무등중·남광주 사거리) △광산구 3곳(운남·첨단우리은행 사거리, 광주송정역) △남구 3곳(운진각 사거리, 백운광장, 씨티병원) 등이다.

전남경찰도 7개 시험지구 46개 시험장에서 총 1만4952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만큼 가용 경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 교통소통을 위해 반경 2km 이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경찰관·모범운전자 등 353명,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106대를 각 지점에 배치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당일 오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수험생들의 시험장 입실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듣기평가 시간대 소음 예방을 위해 3교시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시험장 주변 차량은 경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